



지금 출판계는 유례 없는 어린이책 붐이다. 고무적인 일이지만 서점을 장악하고 있는 그림책 중 90퍼센트가 외국 번역서들이라는 점에서는 씁쓸한 기분이 든다. 실력 있는 국내 작가의 부족이 아쉬울 따름이다.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지닌 국내 작가에 목말라 있던 어린이 출판계에 해갈의 기쁨이 찾아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어린이 도서전인 이탈리아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국내 그림책인 《지하철은 달려온다》가 라가치 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도서출판인들이 최고로 선망하는 상으로 국내 최초 수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상은 대한민국을 수준 높은 어린이책 출판 국가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됐으며 국내 그림책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얼떨떨하기만 해요.” 짧은 소감을 밝히는 작가 신동준(36세)

씨, 글과 일러스트까지 1인 2역을 해낸 이번 책은 그의 첫 작품이다. 너무도 화려한 데뷔인지라 그에게 거는 주변의 기대가 크다. 그가 느끼는 부담과 책임감 또한 막중하다. 1998년부터 시작해 2003년이 되어서야 출판될 만큼 완성도를 기한 《지하철은 달려온다》는 그림책이 어린이를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예술의 표현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요즘 상황과 잘 맞아떨어진다.

지하철과 대형빌딩, 한강철교, 이정표, 승차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사람들.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 역까지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안국동을 지나는 여정. 그속에서 서로 부대끼는 사람들... 일상에서 늘 접하는 지하철 풍경을 콜라주 기법으로 표현했다. 지난 월드컵 때 붉은 악마의 거리 응원 사진, 레미제라블 공연포스터로 광화문을 표현하고, 지하철 승차표가 사람이 되기도 한다. 실물사진과 지하철 승차표를 오려 붙인 콜라주 기법을 이용한 특이하고 장난기 넘치는 그림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소재는 그의 일상과 닮아 있다. 승용차가 없는 그의 주요 교통수단은 지하철이다. 주요 행선지는 집이 있는 서울 명일동에서 교보문고가 있는 광화문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면 한 시간 남짓 소요된다고 한다.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간혹 신문을 펼쳐들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이 더 재미난 일이다. 이런 일상다반사가 작품으로 옮겨졌다. 물론 아이들의 시선으로 융화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외국 영화를 보면 파리나 런던이나 도시가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도시 풍경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찰나 사람들이 만나고 부대끼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지하철을 소재로 삼으면 어떨까 싶었죠.”



일상에 날개 다는 발군의 신인작가가 달려온다

콜라주 기법을 택한 것도 도시환경을 소재로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콜라주는 종이, 옷감, 돌, 쇠조각 등 이물질들을 그림에 붙이는 기법이다. 엉뚱한 물체끼리 조합시킴으로써 별개의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비유적, 연상적, 상징적인 효과를 준다.

“도시에는 높은 빌딩, 사치스러운 사람들, 현란한 네온사인과의 간판 등의 화려한 모습과 쓰레기, 노숙자 등의 우울한 모습이 공존하잖아요. 이런 이질적인 도시의 모습은 예전부터 이질적인 물건들을 붙여져 표현하는 콜라주로 많이 표현되어 왔었어요. 저 또한 한번쯤 시도해 보고 싶었고요.”

그와 그림책의 인연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졌다. 화가가 꿈이었지만 본인의 의지와 달리 불문학과에 진학했다. 그림에도 책과 그림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그쪽 분야에 적을 두고 있는 이들과의 교류가 잦았다. 그러다 대학 4학년 때 어린이책을 디자인하는 선배 작업실에 갔다가 외국의 어린이책들을 보게 되었다.

당시는 외국 책들을 접하기 어려웠던 때라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다. 어린이책은 유치하고, 예쁘게만 그리면 되는 거라는 편견을 깰 만큼 예술적으로 뛰어난 책들이었다. 강한 호기심을 느낀 그는 선배를 따라다니며 출판일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 대학졸업 후에는 출판사에서 디자이너와 편집자로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출판일이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심지어 몸이 아프기까지 했다고. 그때부터 ‘내 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고, 1998년 출판사 ‘초방’에서 개최한 어린이책 워크숍에 참가했다. 워크숍을 통해 《지하철은 달려온다》를 기획하고 출판하게 되었다. 그가 차기작으로 준비중인 작품의 소재는 ‘비행飛行’이다. 비행에서 느껴지는 설렘과 두려움, 신기한 감정들을 책에 담고 싶다고 한다.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어린이책 출판계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번 볼로나도서전에 다녀와서도 느꼈지만 우리 어린이책 수준이 외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의 견해이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책들은 수상작이나 인기작가들 책이 대부분입니다. 국내에서 출판되는 어린이책 중에는 범작과 졸작이 섞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 책들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어린이책 출판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우리 책 수준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외국 어린이책 시장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판계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창작그림책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었다. 결코 적은 세월이 아니다. 독자들도 세대가 바뀌었다. 그만큼 다양한 신인작가들의 발굴과 어린이책 출판인력의 전문화가 필요할 때라고 그는 강조한다.

사람들은 눈으로 세상을 본다. 하지만 어린이책 작가는 마음으로 세상과 사물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가장 좋은 일러스트레이션이 되고, 어린이와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이제 날개를 단 신동준 씨, 그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본다. **✎**

취재 한은희(자유기고가)·사진 박신우 기자

